



“대학교육 전반에 AI 적극 도입”

‘취임 2주년’ 양오봉 전북대 총장의 포부

주요 성과로 세계한인비즈니스 성공 지원 등 꼽아

학생 중심·지역 상생·글로벌 허브 도약 비전 제시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교육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지난 14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 및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양 총장은 “지난 2년 여간 하루 평균 300Km 이상을 달리면서 전북대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 역사상 처음으로 8천 억 원이 넘는 대형 정부 재정지원 사업 유치와 52억원의 발전기금 적립, 재학생 만족도 평가 6년 연속 1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적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운영 전반에 AI를 덧입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12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인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의지도 밝혔다.

양 총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보화 분야 혁신을 위해선 새로운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사와 행정,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AI를 도입해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리는 교

육의 특성화도 제시했다.

그는 “오프라인이라는 낡은 우물에서 물을 떠먹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난해 말 162개였던 온라인 강좌 수를 2027년까지 500개 늘려 세계 어디서든 강의를 듣고 학위를 따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인 AI와 바이오, 반도체·양자컴퓨터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28년까지 유학생 5천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세계 유수의 국가에 5개 이상의 JENJU 국제센터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주전공을 포함한 융합전공을 이수해 복수학위를 취득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올해 본격화되는 RISE 체계와 글로벌대학30 사업에서 지역의 인문사회학, 문화예술과 산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양 총장은 “‘학생들이 꼭 다니고 싶은 대학, 지역과 생생하는 플레그십대학, 외국인이 먼저 찾는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년간 힘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지난 1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대학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부안 화재어선 승선원 12명, 구명조끼 없이 바다로 대피

지난 13일 부안 왕등도 어선 화재 당시 탑승한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조끼는 생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는 장비임에도 아직 이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승선원들의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요구된다.

부안해양경찰서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39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지점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한 2022 신방주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 “구명장비 착용 몸에 배도록 교육 이뤄져야”

불은 발생 2시간25분여만에 진화됐지만, 어선에 탑승해있던 승선원 12명 중 5명(내국인 2명, 외국인 3명)만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7명의 승선원은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다(14일 현재).

당시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탑승한 승선원 모두는 화미를 피하기 위해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

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내부에 구명조끼가 비치됐는지는 선체가 모두 불에 타 확인이 힘들다.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비치와 의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조업지로 이동 중이었기에 대부분이 선체 내에서 쉬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승선원 모두가 바다로 뛰어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고 불릴 만

큼 해양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구명장비다. 하지만 정작 바다로 나가는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률은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상 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즉각 구명장비를 착용하는 행위가 몸에 배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공해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진다면 가만히 있어도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다. 구명장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사고 즉시 이를 꺼내 착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생체난자 흡입술 기술지원 체계 구축

도 축산연구소, 저지종 젖소 육성 위해 임실군과 협업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는 도내 저지종 젖소 육성을 위해 최근 임실군과 협력해 ‘생체난자 흡입술(OPU, Ovum Pick-Up)’ 수정란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축산연구소는 OPU 기술을 활용해 임실군에서 보유한 저지종 젖소에서 수정란을 생산하고, 임실군은 이를 지역 낙농가에 보급하여 ‘저지종 육성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체난자 흡입술(OPU)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살아있는 고능력 암소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기술로, 저지종 젖소 개량과 번식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실군은 이번 사업과 연계해 2024년 수정란 생산용 고능력 암소 1두를 도입했으며, 2027년까지

16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 규모는 2020년 180여 마리에서 2024년 800마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홀스타인에 비해 체중이 68%, 사료 소비량이 70% 수준으로 유지비용이 적고, 더위에 강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합한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지종 젖소의 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깊고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어 고품질 유제품 생산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치즈를 향토자원으로 보유한 임실군은 저지종 젖소를 활용한 ‘임실치즈’의 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농생명산업지구(낙농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만호 기자

화재안전 취약계층 지원한다

전북소방, 12월까지 추진... 1만5270가구에 안전물품 보급

고령화 등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 어려운 계층 보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농산어촌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고,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화재 사망자 52명 중 60세 이상이 35명(67%)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거주자가 33명(63%)에 달해 고령층과 농촌 거주자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45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총인구의 42.5%가 65세 이상 이 될 것으로 전망(통계청)되는 등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되며,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1만5,270가구에 소방시설 및 안전물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물품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구조손수건 등 총 8종으로, 가구당 약 3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자는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의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선 선정되며, 노인과 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물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총 4억3,000만원으로, 도비 30%(1억2,900만원), 시군비 70%(3억 100만원)로 편성됐으며,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화재안전물품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 교육과 주택 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보살핌 역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